

만해 한용운의 평화사상

박재현 (동명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평화란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지를 일제 강점기의 인물인 만해 한용운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만해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은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오롯이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된 시대였고, 그 가운데서 출가 수행자로서의 그의 삶과 「님의沈黙」으로 대표되는 작품세계, 그리고 폭넓은 정치 사회적 활동을 두루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바로 ‘평화’였기 때문이다.

만해는 관군과 동학,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생명(生命)’의 보편성을 통찰했다. 그리고 이 생명성에 반하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그에 항거했다. 그의 평화관은 시 「님의沈黙」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서 만해는 존재 전체의 생명성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실존적인 인간애에 바탕을 둔 평화관을 보여주고 있다.

만해의 평화관은 또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같은 시사성 높은 글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평화의 핵심적 기준 내지 가치로 ‘평등’과 ‘자유’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이러한 평화관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지 못한 위치에서 구현되는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위장된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으며, 상대를 무릎 꿇려 얻는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만해, 한용운, 평화, 「님의沈黙」, 생명, 평등, 자유.

I. 들어가는 말

평화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로 평화를 이해한다면, 평화는 그것에 대해 직접 정의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띠네띠(neti neti)의 화법으로만 겨우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다시 평화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남기 때문이다. 총소리가 멈춘 것이 평화라면 정전(停戰) 상태는 다툼일까 평화일까. 정전상태가 다툼이라면 다툼의 현상은 어디에 있는가. 정전상태가 평화라면 왜 평화협정이 다시 필요한 것일까. 또 다툼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제압되어 다툼 현상이 사라진다면, 그 상태는 평화일까 평화가 아닐까.

본 논문은 평화에 대한 소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채 겨우 시작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평화란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남사스러울만치 단순한 질문이다. 그리고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 말고 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평화에 대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8.29~1944.6.29)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평화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려고 한다.

만해는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가장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가 근현대 전쟁사의 한 복판을 관통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는 두드러지게 평화를 모색

하고 말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놀랍게도 이 모든 전쟁이 만해의 생애와 겹쳐져 있다. 이 전쟁 한 가운데서 그는 평화사상을 다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3·1독립선언, 신간회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사회활동과 문예활동, 또 승려로 활동하면서 제국주의에 맞섰다. 평화의 의미를 쫓아가는 데 만해보다 더 좋은 연구 주제는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만해의 평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가 남긴 절창 「님의沈黙」과 그 이외 몇 가지 문예자료를 통해 만해가 생각한 평화의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평화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朝鮮獨立에 對한 感想의 大要」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만해 한용운이라는 인물 개인보다는, 평화란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가 드러나기를 기대해본다.

Ⅱ. 만해 평화사상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시대적 배경

만해는 그리 먼 시대의 인물이 아니다. 또 그의 개인사와 시대적 배경은 기존의 연구결과물에 충분히 피력되어 있고, 일부 상이한 점이나 가감의 차이는 있지만 그와 그 주변의 생애를 살피는 데 별 어려움은 없다. 여기서는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그의 평화사상을 규명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몇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만해의 생애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전쟁을 전후로 한 그의 청년기 경험이다. 관군과 동학군 사이에서 만해의 위치는 어중간했다. 그는 지역상, 시기상, 가계상으로 동학의 한 가운데 있었으면서

도 평생 동학과 관련하여 어떤 심경도 글줄로 남기지 않았다. 만해의 나이 열여섯 되던 해에 동학군이 일어났으니, 감수성이 매우 예민했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뜻밖의 사실이다.

조상 가운데 공신(功臣)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아버지 한응준(韓應俊)은, 동학농민전쟁 봉기 당시 홍주성으로 들어가 관군의 일원이 되었다. 1894년 4월에 조정에서는 승지 이승우를 홍주목사로 제수했다. 그는 24일에 홍주에 도착했고 닷새 후에 충청감영에 들어갔다. 한응준은 7월 6일에 참모로 발탁되었다. 10월 7일에 이승우는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로 거듭 임명되었다. 한응준은 홍주성을 수성해낸 그 해 12월에 참모관(參謀官)에 정식 임명되면서 호연초토진(湖沿招討陣)으로 가라는 순무사의 전령을 받았다.

동학군은 1894년 11월 우금치 전투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전봉준과 살아남은 농민군은 밀리면서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다시 밀려났다. 전봉준은 옛 부하 김경천의 변절로 순창군 쌓치면 피노리에서 사로잡혔고, 1895년 3월에 사형 당했다. 같은 해 3월에 관군으로 활약했던 한응준도 세상을 떠났다. 만해가 열네 살 되던 해에 조혼하여 맞아들였던 아내는 공교롭게도 전봉준과 같은 집안사람이었다.¹⁾

동학농민전쟁의 한 가운데서 만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남긴 글이 따로 없어 겨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전쟁이 보여준 분명한 사실은 전통과 근대의 부딪침이었다. 전통의 아들인 동시에 근대의 남편이었던 만해는 어느 한 쪽을 손들어 주지 못하고 난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이 부딪치는 경계 위에서 그는 모두가 편안하기만을 바랐을 것이다.

만해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주변국을 넘다

1) 박재현, 『만해, 그날들: 한응운평전』 (서울: 푸른역사, 2015), pp. 17~29 참조.

들며 그가 경험한 근대성과 제국주의다. 그는 세 차례 정도 마음먹고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가 직전인 26세 되던 해(1904년)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30세 되던 해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6개월간 조동종 대학에 유학했다. 또 33세 되던 해에는 만주로 건너갔다가 피격당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세 차례의 만행길에서 그가 공통적으로 목격한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근대 혹은 개화의 물결이었고, 또 그 힘이 품고 있는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성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만해의 이력에는 근대성과 반 근대성이 동시에 포착된다. 일례로 만해의 이력에서 늘 논란거리가 되는 대처(帶妻) 문제를 들 수 있다. 만해는 대처를 옹호하는 주장을 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대처하기도 했다. 대처는 만해의 이력에서 나타나는 개화 혹은 근대의 사례이다. 그는 더 나아가 ‘유신(維新)’을 외치며, 불교계 운영 시스템 전반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신은 당시 동양 3국을 가로지르는 근대와 개화의 정언명법이었다.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바로 그 해, 만해의 나이 32세, 법납 5세에 불과했던 때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해가 근대적 가치에 선뜻 편승한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근대의 양면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대성은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법치주의, 신분차별의 해소, 여권신장, 아동의 인격성 확보 등 민주주의적 가치는 근대성의 양지이다. 이에 반해 제국주의는 근대성의 음지였다. … 근대성을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와 제국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근대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땅따먹기 게임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고, 동참한 이상 남의 땅을 빼앗거나 내 땅을 내주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 따라서 근대의 양면성을 간파한 지성인이라면, 어떻게 제국주의를 배제하면서 근대적 가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²⁾

만해의 생애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1독립선언과 신간

회 활동이다. 만해는 41세에 3·1독립선언에 참여했고, 출소 후 49세 되던 해(1927년) 1월 19일에 신간회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주지하다시피 신간회는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월 15일에 창립했는데, 창립총회에서 만해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피선되었고 6월 10일에 경성지회장에 피선되었다. 하지만 좌우익의 골은 다시 점점 깊어져 갔고, 1931년 5월 16일에 신간회는 결국 해산했다.

이런 활동을 두고 정치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정도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적의 저변에 있던 만해의 사상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데까지 닿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즈음에 『삼천리』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기사는, “1931년도 저물어가는 12월 9일 冬雨가 장안 네거리를 즐퍽이 적시는데 기자는 壽松洞의 朝鮮佛教總務院을 차저 萬海 韓龍雲 선사와 더불어 標題를 이악이하다” 라고 적으면서 시작된다.

기자: 석가께서 먼 2600여 년 전에 印度에 태어나시지 말고 만일 오늘날 조선천지에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들이 당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조선사람의 구제를 위하여 발을 벗고 나서지 안엇겠습니까.

韓: 발을 벗고 나서다니요?

기자: 열렬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무슨 결사운동을 한다든지 그러치 안으면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연설 한마디 하거나 어두운 골목에서 빼라 한 장이라도 돌리거나...

韓: 조선 일만을 아니하시겠지요?

기자: 엇재서?

韓: 부처님은 「生」과 「死」를 초월하셨거니와 또한 「生物」과 「非生物」이 나 시간과 공간을 모다 초월하셨습시다. 말하자면 전우주의 혁명을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상이엿스니까 비단 조선 한곳만을 위하

2) 박재현, “만해 한용운의 선(禪) 의식을 중심으로 본 근대성과 탈근대성,” 『한국선학』 제41호 (2015), p. 86.

시어 분주하지지 안엇을 것입니다. …….

기자: 석가철학의 진리는 엇지 하엿든 좌우간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조선 서울 종로 부근에 사신다면 조선인의 모든 현실생활을 바라보고 또 滿洲에서 이러나는 日中관계와 국제연맹 등 열국간의 정치관계를 바라보고 그러고도 손을 싸매고 안엇을 것이겠습니까. …….

韓: 그러나 이것은 정치운동을 한다거나 혁명사업에 착수하고 아니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 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 세상사람이 다 잘 살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한 행위를 누가 부인하리까만은 다만 부처님은 전세계 인류 중 유독 조선사람 만을 구제하여야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조 고마한 국경이나 혈족에 구분을 지으실 이가 아닙니다. 천하의 모든 인류는 모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거기에 이상이 잇섯을 따름이엇 겠습니다. …….

기자: 석가의 경제사상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韓: 佛教社會主義라 하겠지요.

기자: 불교의 성지인 印度에는 佛教社會主義라는 것이 있습니까.

韓: 업습니다. 그러치만 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나는 최근에 佛教社會主義에 대하여 저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基督教社會主義가 학설로서 사상적 체계를 이루드시 불교 亦 佛教사회주의가 잇서 오를 줄 압니다.

기자: 佛教社會主義! 장차 저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밝고저 합니다만은 그러면 석가께서 2600여년 후인 오늘날 조선에 나섰다면 우리들이 늘 듣는 共產主義者가 되기 쉬웠을 듯합니다.

韓: …….

기자: 석가께서 오늘 조선에 나섰다면 조선옷에 조선집신을 신고 조선말을 하시면서 조선산천에 떠러지는 雨露를 마지고 그리고 조선인이 직히는 법률과 의무를 직히고 게섯을 터이니 역시 민족사상이 그 머리에 업섯다고 할 수 업을 줄 압니다.

韓: 생활이야 부인할 수 잇겠습니까. 그러치만은 우주의 혁명을 日夜 염두에 두시는 분에게 무슨 지역적으로 국한한 특수운동이 잇섯겠습니까.³⁾

인터뷰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기자는 머릿속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물어보는 모양새고, 만해는 이런 기자의 모습을 그저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자는 불교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억지로 담아내려고 애쓰는 눈치다. 그는 좌익과 우익이 합작한 신간회에 출가 사문인 만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을 보면, 만해는 이와 같은 기자의 생각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민족주의 관점에서 불교에 접근하려는 기자의 태도를 마뜩잖아 하고 있다. 이어서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을 정치운동이나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불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교사회주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자가 공산주의로 알아듣자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리고 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불교에 기반을 둔 만해의 평화사상이 단순한 정치 사회운동도 아니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도 아니며, 천하의 모든 인류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데 그 이상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바로 그의 평화사상이 교두보로 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만해의 생애에서 포착되는 사건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그의 평화사상이 형성된 과정과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만해는 늘 경계에 있었다. 그의 청년기는 관군과 동학, 전통과 근대가 갈등하는 경계에 있었다. 또 주변국을 넘나들면서도 신문물과 옛 것이 부딪치는 경계를 경험했고, 민주주의와 제국주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평화사상의 밑거름 내지는 뿌리가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3) “大聖이 오늘 朝鮮에 태어난다면?,” 『삼천리』 제4권 제1호 (1932); <http://db.history.go.kr/id/ma_016_0220_0170>. 이 내용은 『(증보)한용운전집 2』 (서울: 신구문화사, 1979), pp. 291~293에 현대어로 고쳐 실려 있다.

만해는 제국주의가 내포하고 하는 ‘중심’의 질서를 비판한다. 강력한 중심주의는 수많은 주변들의 자유를 강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중화(中華)로 상징되는 봉건적 전통 질서도 비판한다. 또 우리 안의 제국주의, 마음의 제국주의도 염려한다. 사람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라고 더 크고, 개인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라고 더 작은 것은 아니라는 만해의 통찰에는 제국주의와 결부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그의 평화관에 탈근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⁴⁾

만해가 살았던 시기는 여러 정치권력과 사조(思潮)가 각축하던 때였다.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굴복시키고 강탈하고 점령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을 넘어 자랑하던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 형성된 만해의 평화사상을 ‘경계(境界)의 평화사상’ 혹은 ‘다원주의적 평화사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면 이렇게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모든 존재를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다. 만해가 일제에 항거한 이유도 일본정부가 이런 생명성과 정면으로 상처되는 제국주의라는 정치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Ⅲ. 만해의 작품세계를 통해 본 평화의 의미

만해 한용운의 사상은 그가 남긴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만해의 대표시는 단연 「님의沈黙」이다. 교과서에도 실린 탓에 수험용 시가

⁴⁾ 박재현, “만해 한용운의 선(禪) 의식을 중심으로 본 근대성과 탈근대성,” pp. 100~101 참조.

되어 시적 감상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이 시가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님의침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력을 들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님’에 대한 해명이 아닐까 싶다.⁶⁾ 「님의침묵」을 다루는 논문과 참고용 도서에서 ‘님’에 대한 설명이 빠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님의침묵』 자체가 난해한 이유와 관련해서, “식민지시대의 검열제도를 피해 자신의 시적 의도를 살리고자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만해시가 난해하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의견도 있다.⁷⁾

본 연구자는 「님의沈黙」에서 색다른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단풍’과 ‘침묵’이다. 이 두 개념이 「님의沈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님의沈黙」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연구결과물을 살펴보면 이 두 개념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듯하다. 단풍(나무 숲)을 두고서는, “푸른 산빛과 대조적으로 그 희망의 푸른색이 소멸된 ‘절망, 조락(凋落)’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불교의 ‘공(空)’ 사상과 연결됨”이라는 수험용 참고서에

5) “교과서에 수록된 한용운의 시 소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당신, 님, 누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때의 의미를 한용운의 삶과 관련지어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조국’, 승려라는 점에서 ‘부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 무조건적인 ‘당신=조국, 부처’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학습자에게도 이러한 공식으로 설명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주체적인 감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양해경, “한용운 시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 66.

6) 배호남, “한용운의 『님의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8집 (2014), pp. 101~128; 박현수, “한용운 시의 ‘님’과 해석의 방향,” 『유심』 제68호 (2013).

7) 엄국현,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침묵의 수사학,”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pp. 103~159.

실린 설명 이외에 별 다른 의견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님’에 대해서는 다들 주목하면서도 정작 ‘침묵’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⁸⁾

본 연구자는 문학계에서 「님의침묵」의 ‘단풍(나무 숲)’을 두고 왜 그것이 절망과 조락(凋落)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하는지 그 근거를 추적해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님은 절망의 숲으로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 게 된다. 「님의沈黙」 속의 님은 과연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까. ‘단풍(나무 숲)’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만해의 또 다른 작품 소설 「죽음」은 1924년에 탈고했지만 발표하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이 소설은 그의 전집이 발간되던 시점에서야 겨우 수습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소설(『죽음』을 가리킴)의 사건전개나 인물을 보면 당대의 물질적이고 일회적인 사랑의 풍조를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려는 충동을 불교적인 인연연기설에 기반을 두고 그려내었다. 이러한 점은 시집 『님의침묵』의 창작동기와도 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탈고시점 역시 「님의침묵」(1925년 8월 오세암에서 탈고, 1926년 5월 회동서관에서 출간)과 비슷하다는 점은 소설 『죽음』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 높인다.¹⁰⁾

8) 「님의침묵」에서 님만큼이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침묵’이다. ‘침묵’에 대한 학술적 규명은 이상하리만치 드물다. 수험서에서도 ‘님’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있지만, ‘침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 「님의침묵」에서 침묵은 우리에게 그냥 당연히 ‘말 없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만해의 작품세계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자가 문학을 전공분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9)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연구』, 제11호 (2004), p. 151.

10) 만해의 문체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 소설 「죽음」을 꼽을 수 있다. “이

소설 『죽음』 가운데 ‘단풍(나무 숲)’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보인다.

초가을의 어느날 다 저물어 가는 저녁때였다. 종철과 영옥은 기약치 않고 파고다 공원에서 만나서 거북비가 있는 북편으로 나무 밑에 놓여 있는 긴 교의에 같이 앉았는데, 이른 가을 바람에 처음으로 붉은 적은 단풍이 나무 사이를 통하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다.

영옥은 종철을 향하여,

『저 단풍은 곱고 좋기도 한데요.』

『단풍이 그렇게도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꽃보다도 더 고운데요.』

『단풍은 아무리 고와도 그것은 소슬하고 처량한 가을빛입니다. 나는 그런 단풍을 사랑치 않고 아름다운 봄에 피는 좋은 꽃을 사랑합니다.』

『봄에 피는 좋은 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꽃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날이 많이 있는 봄꽃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을 거두어 가는 가을 바람에 마지막 빛을 내는 고운 단풍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을 단풍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만일 단풍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영옥씨가 단풍을 사랑한다면 나도 꽃을 사랑하지 않고 단풍을 사랑하겠습니다.』

『.....』

그 사이에 해는 저물고 상현달이 비쳤다.¹¹⁾

소설은 연보에 탈고한 날짜까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1924년 10월 24일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내용에 있어서 1930년대 창작된 소설에 비해 전 근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점, 시집 『님의 침묵』의 여성화자의 내면과 주인공 영옥의 내면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연보의 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이 작품은 미발표된 유고작이기 때문에 많은 논자들이 논외로 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많은 점에서 시집 『님의 침묵』과 그 내용과 문체상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p. 148.

인용문에서 보듯이 주인공 영옥과 그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종철, 이 두 사람은 단풍을 두고 대화를 이어간다. 문맥상으로 봐서는 애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험겁고 느슨한 대화의 품새가 아니다. 영옥이 단풍이 좋다고 말했다. 대개의 연인 사이라면 나도 좋다고 그냥 맞장구치고 말면 그만이다. 그런데 눈치 없는 종철은 자신은 단풍보다 봄꽃이 좋다고 반박 아닌 반박을 한다. 이 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논쟁으로 치달을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진행된다.

종철은 단풍이 소슬하고 처량한 가을빛이어서 좋게 보이지 않고, 자신은 봄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것이 단풍이 가지고 있는(상징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미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님의沈黙」의 ‘단풍(나무 숲)’에 대한 해설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인공 영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옥은, 봄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 즉 자기애(自己愛)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영옥은 자기가 단풍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풍은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어로 다시 쓰면 단풍은 자존감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도모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풍은 자존감을 잃은 여리고 불우한 것들을 상징한다. 단풍은 레미제라블인 것이다. 이렇게 소설 『죽음』의 단풍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님의沈黙」 속의 단풍나무 숲은 절망이나 조락의 숲이 아니다. 그 숲은 자존감을 잃은 여리고 불우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어인 침묵(沈黙)은 바로 이 불우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침묵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 말해도 아무도

11) 한용운, “죽음,” 『(증보) 한용운전집 6』 (서울: 신구문화사, 1979), pp. 322~323.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 주목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가깝게는 안으로는 구습에 치이고 밖으로는 개화에 치이는 조선 백성의 불우함을 상징하며, 좀 더 멀게는 중생의 고단한 한 생애를 상징한다.

결국 「님의沈默」 속의 님은 여리고 불우한 존재들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 것이다. 왜 작은 길일까. 남들은 안 가니까 작은 오솔길이다. 봄꽃을 향해 난 길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니 당연히 넓고 큰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가을 단풍은 다들 외면하고 가지 않으니 작은 길이 된다. 또 남들이 다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가는 형국이니, 차마 떨치고 갔다고 표현한 것이다. 봄꽃을 찾아 떠난다고 하면 아무도 말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풍처럼 불민하고 허접해 보이는 것들 속으로 떠나려고 하는 님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말리는 것이고, 님은 그 말림을 뿌리치고 끝내 떠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님의沈默」을 읽어보자.

님은갓습니다 아^々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습니다.

푸른산빛을깨치고 단풍나무숲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썰치고 갓습니다.

(중략)

아^々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默을 힘싸고돕니다.¹²⁾

12) 시어의 변형을 고려하여 원래의 표기와 띄어쓰기를 살린 원문을 인용했다.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biblio.endy.pe.kr/hanyongun/nimeuichimmug/nimeuichimmuk>>. 『님의침묵』에 실린 시어들은 오랜 세월 판본이 바뀌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직, “『님의침묵』 판본(板本)과 본문 비평,” 『불교평론』 제40호 (2009 가을), pp. 353~363.

만해의 사상이 소설 『죽음』의 주인공 영옥과 「님의沈黙」의 님에게 투영되어있다고 봤을 때, 그가 바랐던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은, 소외된 것들에게 눈길 주는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의 기준 아래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세상,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삶에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적어도 만해가 생각한 평화는 이런 것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경계(境界)의 평화사상’ 혹은 ‘다원주의적 평화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해의 사상은 그가 남긴 장편소설 『薄明』을 통해서도 그 일단이 드러난다. 이 소설은 1938년 5월 18일부터 1939년 3월 12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소설 내용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통과 근대, 구습과 신문물이 부딪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해당 부분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멀찍이서 늙은이들 한 축이 의관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서는 그들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아편쟁이 부부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있는 저 여자를 좀 보더라고.

-어떤 여자 말이여?

-아따 저기 추자나무 밑에 아편쟁이하고 같이 있는 여자 말이여. 혹시 저 여자의 역사를 들어봤는가 모르겠네.

-아, 듣고 말고지.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야 다 알지.

-그런데 지금은 내외간도 아니라네 그러.

-내외간이건 아니건 그거야 알 것 있나. 내외간은 고만두고 친부모라도 저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외간이라 하더라도 농팡이가 저 지경이 된 바에 남녀간 정리 같은 게 있거나 하겠는가? 어쨌든 저 여자의 천품에서 우러나는 마음씨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 뱀이지,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가만 보면, 저 여자 얼굴이나 외양이 그다지 볼품없는 여자가 아니여. 저 모양이 되었으니 그렇지, 화장이나 하고 꾸며 놓았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모양이여.

-그러게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여. 여자가 아주 못생겨서 돌에도 나무에도 댈 데가 없다면 혹 몰려. 여자가 저만하면 아무 데 가도 잡힐 손이 있던 말이여. 들으니까 피수는 사람도 꽤 있었다네. 저렇게 고생할 것 없이 마땅한 데 가서 잘 살라고 했지만, 그런데도 기어이 안 듣고서 저 아편쟁이를 위해서 저러고 다닌다니, 그 속내는 모를 일이지만 하여당간 어려운 일이여.

늙은이들이 수군대고 있는 동안 아편쟁이 부부 옆으로 신여성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삼상한 양장에 깨끗한 운동화를 신은 한 여자는 포도알처럼 검고 윤기가 도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렸다. 또 다른 여자는 중키에 평퍼짐하고 머리는 깎았다가 기르는 중인 것 같았는데, 깊은 회색 파라솔을 짊으며 걷고 있었다.

-언니, 언니, 저것 좀 봐요.

-응? 뭘 가지고 그러니?

-저런 것들 때문에 여권확장이 안 되거든.

양장한 여자가 입을 실룩거리고 혀를 킁킁 차면서 말했다. 알아듣지 못한 듯 능청을 떨던 다른 여자는 사십이 넘어 보였다. 희뜩희뜩한 머리와 괴롭게 잡힌 주름살에, 만고풍상을 다 겪은 듯 형적이 얼굴에 드러났다. 가름하고 무뚝뚝한 듯 애교 있는 눈에 웃음을 흘리면서 그 여자가 말했다.

-왜, 저 여자가 여권 확장을 하지 말라고 말리기라도 하든?

양장한 여자가 흘겨보고 입을 실룩거리며 말을 되받았다.

-왜 아무 것도 모르는 구식 여자들 말하듯 하시오. 여권확장이란 바꾸어 말하면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거든. 개성이 없어야 무엇이 되겠어요. 구도덕으로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만 하는 것이요, 손톱만한 권리도 없거든. 저런 썩은 물건들이 구도덕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개성은 한 톨어치도 없이, 다 죽어가는 아편쟁이를 쫓아다니면서 가장 열녀인 체하고서 저지경을 하니, 조선의 여성운동이 될 수 있겠느냐 말시오. 게다가 썩은 사내놈들은 또 그것이 좋다고 오며가며 돈까지 쥐어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오. 나는 저 따위 인간을 보면 곧 죽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그들은 차디찬 웃음을 웃는다.

.....¹³⁾

좀 길게 인용한 감이 없지 않지만, 소설의 특성상 이야기의 전후 맥락과 장면묘사 등을 살피지 않고는 설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길어졌다. 위의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늙은이들로 상징되는 구습과 양장 여인으로 상징되는 근대가 여자 주인공 순영을 가운데 두고 첨예하고 맞부딪치고 있다. 노인들은 순영에게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정조나 열녀 정도의 관념적 기준을 들이댄 결과일 뿐이다. 양장한 신여성은 순영을 향해 구습의 노예라고 멸시하며 차가운 눈길을 보낸다. 결국 순영은 구습과 근대 어느 쪽에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 이런 순영의 모습은 소설 「죽음」과 시 「님의沈黙」에서 나타났던 가을 단풍의 모습과 중첩된다. 그것은 안으로는 구습에 치이고 밖으로는 개화에 치이고 있었던 레미제라블, 조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소설 『박명』은 만해가 환갑 무렵에 쓴 작품이다. 가난한 살림을 버텨내기 위한 호구지책의 동기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연재를 시작하던 첫날에 만해는 이 소설의 창작 동기와 집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듣고 본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사람의 여성을 그려 볼까 합니다. 대략 이야기의 줄기를 말하면 시골서 자라난 한 사람의 여성이 탕자의 아내가 되어 처음에는 버림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병과 빈곤을 가지고 돌아온 남편을 최후의 일순간까지 순정과 열성으로 받드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여성을 그리는 나는 결코 그 여성을 옛날 열녀 관념으로써 그리려는

13) 이 장면 묘사는 본 연구자가 소설 『박명』의 원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축약하는 등 여러 가지로 수정을 거친 것으로 박재현, 『만해, 그날들: 한용운평전』 (서울: 푸른역사, 2015), pp. 127~131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설의 온전한 원문은 해당 날짜의 신문지상이나 『(증보) 한용운전집 6』 (서울: 신구문화사, 1979), pp. 266~2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것이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면서 남을 섬긴다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심정을 그려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줄거리를 끌고 나가면서 만약 결가지로 현대 남성들의 가정에 있어서의 횡포하고 파렴치한 것이라든지 또는 남녀 관계가 경조 부박한 현대적 상모가 함께 그려진다면 작자로서 그욕이 만족하는 바이며 또한 고마운 독자 여러분에게 그다지 초솔하지 아니한 선물을 드렸다고 기뻐하겠습니다.¹⁴⁾

만해는 『박명』을 통해 열녀나 신여성을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소설은 권선징악 같은 고대소설의 주제의식을 계승하지도 반봉건 같은 신소설 혹은 계몽소설의 주제의식을 내세우고 있지도 않다. 만해는 구습과 근대 양쪽 모두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한 사람의 인간’과 ‘거룩한 심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다. 구습과 근대의 경계에서 만해는, 이념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 자체에 주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만해가 남긴 시와 소설 작품을 통해 볼 때 그의 사상이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소외되고 불우한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또 가을 단풍의 쓸쓸함을 통해 시적 형상화를 이룬다. 만해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한 어떤 이념이나 노선도 결국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만해는 봉건적 질서나 근대 개화사상 가운데 어느 한쪽에 선뜻 손들어 주지 못했다. 그것들은 전통적 구습이나 제국주의의 형태로 폭력성을 감추거나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공감과 애정, 그리고 잠재되어 있거나 드러난 폭력성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가 만해의 문예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평화사상의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

14) 한용운, “박명,” 『(증보) 한용운전집 6』 (서울: 신구문화사, 1979), p. 6.

IV.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시사점

주지하듯이 만해의 행적은 출가승, 항일독립운동가, 문인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님의沈默」 등 문예작품을 통해 드러났던 그의 평화사상은,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에서도 포착된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당연 「조선독립(朝鮮獨立)에 대한 감상(感想)」이다. 내용 설명에 앞서, 이 문건과 관련된 서지학적 사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동일한 문건을 두고 명칭에서부터 혼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조선독립의 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조선독립감상」, 「조선독립감상의 대요」, 「조선독립 이유서」, 「독립이유서」, 「3·1독립선언이유서」, 「3·1독립이유 답변서」, 「독립이유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문건에 대한 명칭부터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문건이 최초로 활자화 된 곳은 1919년 11월 4일자로 발행된 〈독립신문〉인데, 여기에 실린 글의 제목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大要)」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신문 어디에도 이 문건의 작성자가 만해라는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글의 앞부분에, “此書는 獄中에 계신 我代表者가 日人 檢事總長의 要求에 應하여 著述한 者 中의 一人대 秘密裏에 獄外로 送出한 斷片을 集合한 者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¹⁵⁾

어쨌든 〈독립신문〉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문건의 작성자는 3·1독립선언에 참여했다가 검거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獄中에

¹⁵⁾ 이 문건과 관련된 발견 경로 등 여러 서지학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大覺思想』 제25집 (2016), pp. 201~223; 김광식, 『춘성: 무애도인 삶 이야기』 (성남: 새싹, 2009).

게신 我代表者”라고 작성자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신문>에 실린 것은 애초에 작성된 글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이거나 핵심만 간추린 요약본일 것이다. “著述한 者 中の 一”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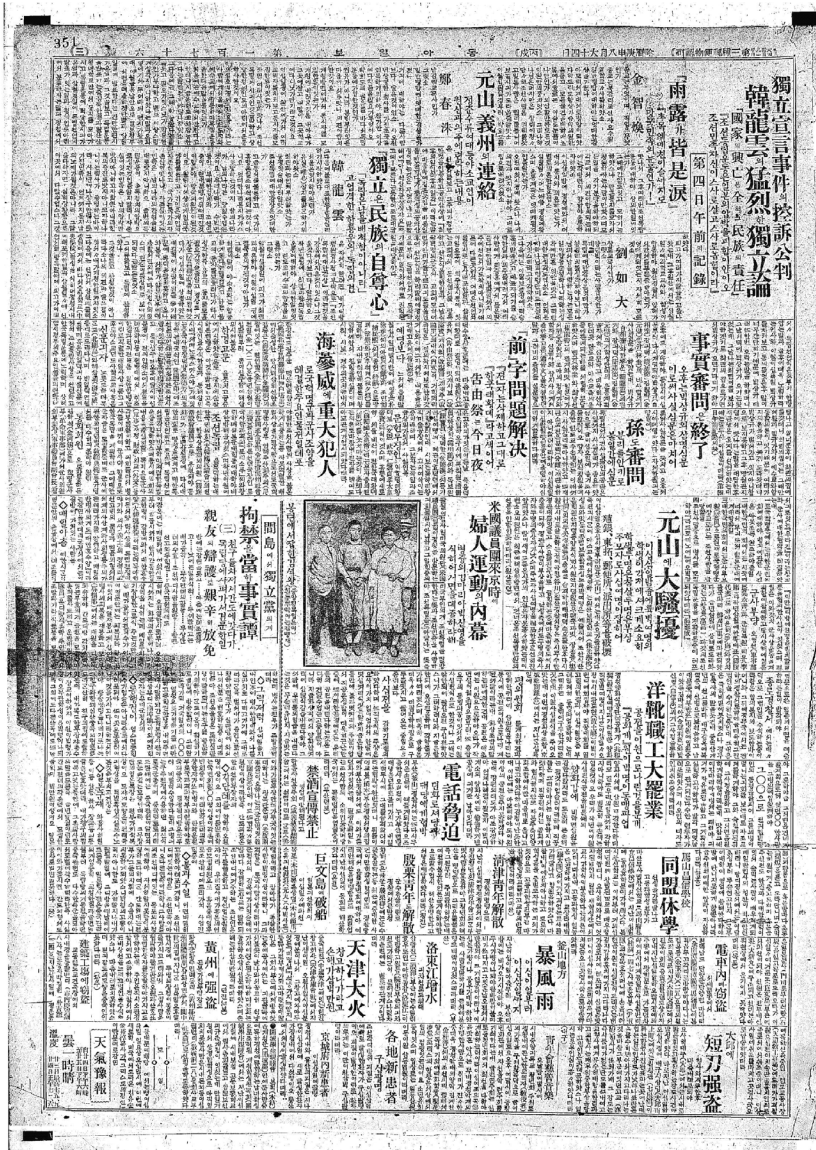
이 문건과 관련해서 불교학계에서는, 만해가 1919년 7월 10일에 옥중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후 상좌인 춘성이 면회 온 기회를 이용해서 옥 밖으로 내보냈으며, 춘성은 다시 범어사 청년 승려인 김상호에게 전달하였고, 김상호가 이를 임시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1970년대 춘성이 시인 고은에게 직접 털어 놓은 것이고, 불교계의 구술 자료를 광범위하게 취합해 오고 있는 김광식 박사에 의해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¹⁶⁾

이러한 사실은 직접 당사자의 구술 증언이라 일단 믿을만하다. 또 비록 <독립신문>에서 한용운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건의 작성자가 만해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1920년 9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독립운동사건 공소공판 기사내용에 보면, 만해는 “내가 지방법원 검사장의 부탁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것을 감옥에서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면 다 알 듯하오.”라고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¹⁷⁾

이상의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만해는 3.1독립선언으로 검거된 후 검찰에 일종의 진술서에 해당되는 장문의 글을 제출하였는데, 이 문건이 우여곡절 끝에 임시정부에까지 전달되었고, 독립신문 지면에 핵심(大要)만 추려 실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만해가 작성한 문건의 명칭은 만해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구술한 밝힌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으로 칭하는 것이 적합할 듯 싶다.

16) 김광식, 앞의 책, pp. 42~43.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20_09_25_v0003_0470>.



〈그림 1〉“獨立宣言事件의 控訴公判, 韓龍雲의 猛烈한 獨立論”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기술된 만해의 평화관은 너무 분명하고 적확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가 오히려 민망하다. 만해는 에둘러 말하지도, 말 하다가 그만두지도 않는다. 그의 글은 핵심을 곧바로 질러 들어간다.

自由는 萬有의 生命이요 平和는 人生의 幸福이니, 故로 自由가 無한 人は 死骸와 同하고 平和가 無한 者란 最苦痛의 者라 壓迫을 被한 者의 周圍의 空氣난 墳墓로 化하고 爭奪을 事하는 者의 境涯는 地獄이 되나니 宇宙萬有의 理想的 最幸福의 實在은 處 自由와 平和라.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야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爲하야는 犧牲을 甘飴嘗하나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일지로다. 그러나 自由의 公例는 人의 自由를 侵치 安이함으로 界限을 삼나니 侵掠的 自由난 沒平和의 野蠻 自由가 되며 平和의 精神은 平等에 在하니 平等은 自由의 相敵을 謂함이라. 故로 威壓의 平和는 屈辱이 될 뿐이니 眞自由는 반다시 平和를 保하고 眞平和는 반다시 自由를 伴할지라. 自由여 平和여 全人類의 要求일지로다.¹⁸⁾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독립신문에 실린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서 첫머리의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위에 인용된 부분에 한정해 봤을 때, 총 95개의 낱말 가운데 ‘平和’라는 개념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글 전체의 핵심이 바로 ‘평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피력되어 있는 만해의 평화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화는 평등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자유를 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등과 자유가 서로 팽팽히 균형(相敵)을 이루으로써 진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만해의 말을 쫓아가며 정리해 보면, 평화는 고통과 반대되

18) 우리역사넷 자료로 본 한국사;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4&tabId=01&levelId=hm_141_0090>.

는 행복 상태이고, 그것을 지켜내기[保]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며, 그 기본 정신은 평등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진정한 평화일 수 있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이런 만해의 평화관에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대립이나 갈등의 유무는 드러나 있지 않다. 현상적인 드러남은 오히려 진정한 평화 혹은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어쩌면 무관할지도 모른다. 현상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어도 평화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피력된 만해의 평화관에 따르면, 평화의 첫 번째 핵심적 기준 내지 가치는 평등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상대를 무릎 꿇려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상대를 고개 숙이게 해서 획득하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다. 만해는 제국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제국주의가 끝내 평화를 향해 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는 상대를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하여 마침내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는 정치노선이었기 때문이다. 만해의 평화관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지 못한 위치에서 구현되는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위장된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서 평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두 번째 기준 내지 가치는 자유이다. 평화와 자유는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쪽이 되었던 불완전하거나, 허구에 불과하거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만해는 보고 있다. 평화의 손짓은 대개 “내 너를 구해주겠다”거나 “내 너를 평안케 하겠다”거나 “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로 다가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짓이 대개 상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에게는 “괜찮다”거나 “이제 되었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만해의 평화관은 분쟁 또는 갈등 상태의 현상적 드러남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의 평등성’을 당사자 각각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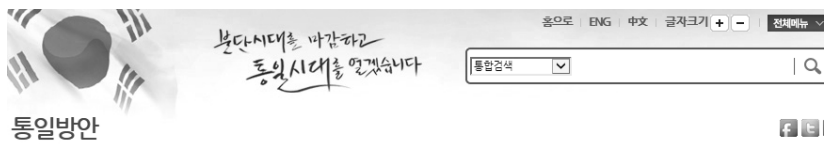
고 있다. 이런 그의 평화에 대한 통찰은 단순히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성을 평생에 걸쳐 겪어내고,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같은 다양한 이념 노선이 충돌했던 격동의 세월을 살아내면서 도출된 것이기에 더욱 절실하고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평등과 자유는 「님의沈黙」 등 그의 문예작품에서 핵심을 이루었던 불우한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평등과 자유는 불우해서 말할 곳도 들어줄 곳도 없는 수많은 님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이다. 당사자들의 평등과 자유가 확보되지 못하면 강요된 침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화관에 비추어 보면, 일본제국주의가 드높였던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의 허구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추상적 질서 속에서만 모색되는 평화는 또다른 폭력의 한 형태가 될 공산이 큰 것이다.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드러난 평화관을 한용운 개인의 의견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만 유효한 관점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데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방안으로 하고,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철학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 평화, 민주주의 3대 통일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한국의 통일방안을 만해의 평화사상에 입각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¹⁹⁾ 먼저 평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이라는 대원칙은 있지만 남과 북의 ‘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천명이 없다.

19)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61>〉.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89.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94.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통일의 철학 :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 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그림 2> 대한민국 통일방안

두 번째로는 평화의 개념을 ‘무력’의 사용 여부라는 지나치게 현상적인 맥락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평화통일의 사전적인 의미 역시 “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좁은 의미의 정의로는 전쟁 내지 그 비슷한 갈등양상의 현상적 유무를 기준으로 평화에 대해 논하게 된다. 휴전선에 확성기 소리가 커지면 평화가 깨진 것이 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완벽히 무관심하고 분단 상황이 고착화 될수록 오히려 평화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의 자주, 평화, 민주 3대 통일 원칙에는 적어도 만해의 평화관에 보이는 평등과 자유의 맥락이 좀체 발견되지 않는다. 만해의 평화관에 의거한다면, 평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전쟁 같은 갈등 상황 보다는 평등과 자유라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설사 무력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흡수통일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평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흡수는 서로간의 평등과 상대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발상이기 때문이다. 흡수는 폭력의 한 양상이 되기 십상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대북정책 내지는 법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평화란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지 지극히 단순하고 무모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화의 당위성을 얘기하거나 누군가의 평화관을 거론하기에 앞서 평화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평화에 대해 직접 정의내리기 어렵고 부정적인 화법으로만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평화에 대한 담론은 불가능하고 단지 수많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의 타개에 관한 담론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평화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일제 강점기의 인물인 만해 한용운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만해는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가장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와 「님의沈黙」으로 대표되는 작품세계, 또 정치 사회 종교계에 걸친 활동을 관통하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가 아닐까 싶다.

만해의 평화관은 그의 생애가 어느 한쪽에 전부를 걸 수 없고, 양쪽 혹은 여러 쪽을 모두 살펴야 하는 삶이었다는 경계성에서 비롯된 것 같다. 관군과 동학,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생명’임을 통찰했고,

이에 반하는 모든 것에 항거했다. 이런 그의 평화관은 시 「님의沈黙」에 서는 ‘단풍’과 ‘침묵’ 두 가지 시어에 집중되어 드러난다. 또 소설 『죽음』과 『박명』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라는 실존적 관점에서 가련한 못 생명들을 대표하여 여성을 상징화함으로써, 존재 전체에 대한 깊은 연민과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애에 바탕을 둔 평화관을 보여주고 있다.

만해의 평화관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같은 시사성 높은 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피력되었다. 여기서 그는 평화의 핵심적 기준 내지 가치로 ‘평등’과 ‘자유’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이러한 평화관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지 못한 위치에서 구현되는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위장된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상대를 무릎 꿇려 얻는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참고문헌】

국문 자료

- 『(증보)한용운전집 2』. 서울: 신구문화사, 1979.
- 『삼천리』 제4권 제1호, 1932.
- 김광식. 『춘성: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 성남: 새싹, 2009.
- 김용직. “『님의침묵』 판본(板本)과 본문 비평.” 『불교평론』 제40호, 2009 가을.
-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大覺思想』 제25집, 2016.
- 박재현. “만해 한용운의 선(禪) 의식을 중심으로 본 근대성과 탈근대성.” 『한국선학』 제41호, 2015.
- 박재현. 『만해, 그날들: 한용운평전』. 서울: 푸른역사, 2015.
- 박현수. “한용운 시의 ‘님’과 해석의 방향.” 『유심』 제68호, 2013.
- 배호남. “한용운의 『님의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8집, 2014.
- 양해경. “한용운 시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엄국현.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침묵의 수사학.”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연구』 제11호, 2004.

인터넷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http://contents.history.go.kr>>.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Manhae Han Yong-Un's Peace Thought

Park, Jae-Hyeon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peace is and what conditions can be called peace through Han Yong-Un, a character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 personal and historical context provides the best clues to what peace is. In the meantime, the theme of peace penetrates his life as a monk, literary works, and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Manhae insight the universality of 'life' in the war with the regular army and the peasant army, the conflict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he imbalance of imperialism and democracy. And against the violence of imperialism against this 'life'. His perspective on peace was revealed through poetry and fiction. Here, he showed a peaceful view based on deep compassion for the whole being and universal and existential humanity.

Manhae's perspective on peace was more prominently displayed through high-profile writings such as "Impression of Chosun Independence". Here he referred to the two criteria of 'equality' and 'freedom' as the core standards and values of peace. Peace in a state of unequal mutuality is temporary and false peace. Peace, which is made by kneeling on the other side, cannot be peace in any case.

Key words: Manhae (萬海), Han Young-Un (韓龍雲), Peace, Silence of Nim, Life, Equality, Liberty.

박재현(Park, Jae-Hyeon)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논문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2005)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깨달음의 신화』(2002),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2009), 『만해, 그날들』(2015) 등의 저서 외에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현재 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